



박 창 선 선 생

박창선, (본명: 박 알렉세이 알렉산드로위치) 선생은 1915년 11월 부일에 원동변강 배리포리주 석산구역시 영동에서 농촌학교 교원의 박 알렉산드르의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박선생은 향촌에서 1926년 소학교를 나왔으며, 1932년에 고졸을 졸업하였다. 고졸을 나온후 1월러 아버지가 세상떠나고 다음 1년후 또 어머니가 별세하였었다. 박선생은 양부모를 잃은 후 자기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1932년에 고졸을 나왔기 때 문에 대학에 공부하려할 자격은 없었으나 경제상 문란때문에 향촌에서 약 20 필로레타 필어

진 곳에 위치하여 있는 수형 단광시에 (현재 발라지산스크) 있
 는 단광 기술전문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그것은 동 전문학교에서는
 장학급도 잘 지불하여주고 숙소도 비교적 양호하였기 때문이었던바,
 삼촌의 집에서 살고있는 박선생의 형편에 있어서는, 장차 전문학교
 졸업후 단광일이 바쁘면 전은 예측되었지만, 의식적으로 그 길을 택하
 였다. 박창선 선생은 1935년에 수형 단광시 전문학교를 졸업하
 고 동 단광에서 브티가다 기술 지도자로 복귀 시작하여 현장장
 에 이르기까지 8년간 은발적으로 일하시였다.

1937년에 원동으로 복귀 한인토의 강제어주치기에 박선생은
 삼촌의 가정을 따라 우르베크한, 하슈켄트주, 중칠치구역 레닌
 명칭 꿀호르에 도착하였다. 동 꿀호르는 원동에서 그 꿀호르
 조직창시때 복귀 살고있던 협동조합원들이 그대를 조직적으
 로 어우하여 들어왔기때문에 계속 시명동 꿀호르라고 불렀다.

박선생은 삼촌의 손을바라보고 살수없는 형편에서 시간을 느추
 지 않고 자기 직무를 변경하여 소학교, 소중등 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고 일하면서 1939년으로 복귀 하슈켄트 사대 홍신학 복에 입학
 하여 1944년에 사대 어문학부를 수료하였다.

항상 그 품행이 단정하고 연사성이 많은 박선생은 원동에있
 을때에도 시명동 사람들로 항상 어린 학생 시절부터 뚝뚝
 한 언간으로 인정하였었다. 그런데 영북으로 다 잃고서로 아
 무런 큰 고생이 없어공부도 쉬대로 하고 일도 제대로 꽤 잘하
 동네 사람들도 신망이 높았다. 이당시에, 즉 소련조국전쟁
 의 어수룩은 시기였지만 박선생의 위신을 받아 1941년에
 소련 공산당 후보당원으로 입당하였으니, 1942년 여름 방학
 시기에 박선생은 같은 동리에서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있던
 미연 처녀 고마리아 미하일롭나와 약혼하여 삼촌의 집
 에서 성대한 잔치를 하였다. 그후 박선생 양쪽은 아주

다정함 가정을 이루고 아들 형제 딸 3 형제를 양육하여
역군으로 내세웠다.



사진은 박항선 과 교 마리아= 리하일 롬 나 양
두 양자가 1945년에 하뉴켄트에서 찍은 것이다.

박선생은 1942년 부터 1946년까지 즉 북한에 파견되어 나가
실 때까지 하뉴켄트주 공철지구역 로키인 명칭 협동조합에 있
는 고공에서 어문학교원으로 일하시였다.

박선생은 1946년 4월 부터 1946년 11월까지 무주백
공화국 교육청에서 조직한 단기 특별 로어교원 강습을 졸업한 후 북
한에 파견되어 나가게 되었으나, 북한에 도착한 박선생
은 처음 1946년 12월 1일 부터 1948년 2월 28일까
지 함북 청진사대 교육부학장으로 일하시였다.

1948년 3월 1일 부터 1949년 7월 17일까지 평양
사대 부학장으로 재직하며, 그 후 1949년 8월 1일 부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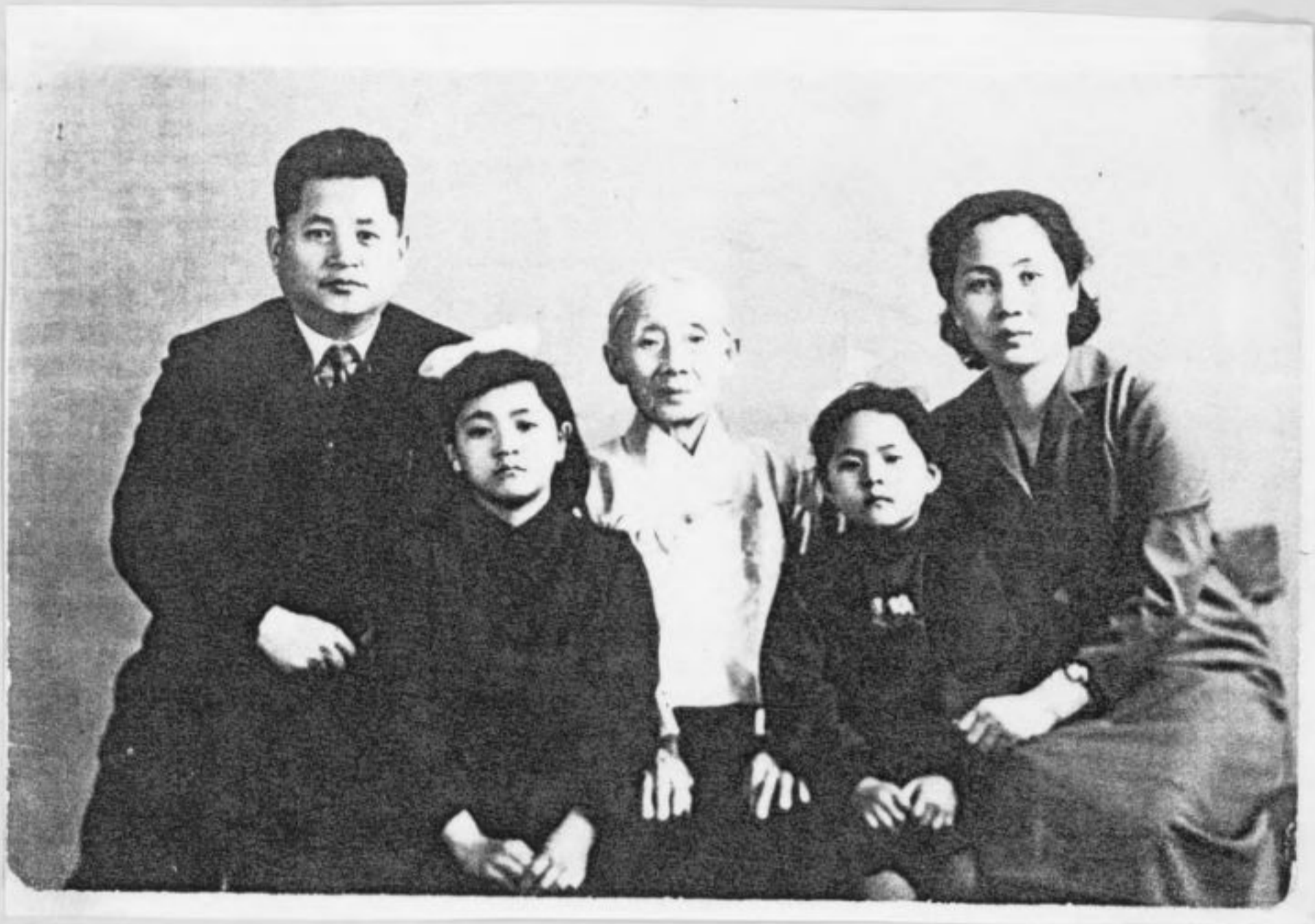
1950년 9월 10일까지 평양군대 학장으로 일하시였다.

1950년 6월 25일에 동족상잔이 벌어지자 박선생도

4.
인민군대에 초보로써 군복을 없게 되었으나 바로 이 때
복하는 인민군대 군인교양사업에 자기 역량을 어마저 하게
되었던바 1950년 9월 9일 복하 보병 36사 문화정치
부사단장으로 임명되어 사리원 해륙계선까지 나가시었다
가 유엔군의 압력에 의하여 동만주 연길시에 약 3개월
주둔하면서 약간의 전투 훈련을 한 다음 다시 강원도 철
원 계선까지 행군하여 나쁜 다음 사단은 강원도에 계속
주둔하여 있던 유명한 최현사령관의 관리하는 인민군 제
2군단에 배속식한 후 박선생은 그 사단에서 전근 되어
조선인민군 항공사령부 관할하여 훈련하고 있던 항공
제2 전투기사단 정치부사단장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그 당시 항공사령부 관하에는 2개의 전투기 사단, 그중에서 제
1 전투기 사단은 제1기사단 즉 그때까지는 최신 기술로 무장
된 방사기 사단이였으며, 제3사단은 폭격기 사단, 제4
사단은 기술사단이였다. 박선생이 복무한 사단의 사단장은
노장 허민국, 부사단장에 항공사령부 산하 첫 비행사 공화
국 영웅 대좌 김기옥이였다. 사단의 기본 전투무기는 소련 제
비행기 «12-10» 전투기였던바, 이 비행기들은 아직 방사기가 아
니라 프로펠러-즉 발탄개비가 돌아가는 비행기였다. 이 외에 항
사령부 관하에 여성 비행 야간 폭격기 대대가 있었으며 대대장
에 여성, 공화국 비행사 영웅 대좌 허양이였으며 중대장 3명
중 제일 과감하게 야간 폭격을 수행한 여성 비행사는 진을란
양이였다. 대대의 기본 전투무기는 소련 제 비행기 «비보-2»
였던바 본래 이 비행기는 소련에서 신 비행사 훈련용
이나 초원이나, 산악, 삼림 지방에서 흔히 우편물 운반에 사용하
며, 농촌경리에서 해충과의 투쟁에서 사용하는 비행기이다
비행 시속은 200-250 km. 비행고는 약 1000 미터 정도다.
항공사령부 산하 제1 방사기 사단이 동쪽상자 3간외 기본

5.
전후 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 항공방사기 사단장에 이전 일
제 시대 비행사 노위, 그 당시 소장 강대용, 비행복사단장
에 김희경, 3개 령대장공에서 가장 용맹스럽게 전후한 비
행사는 공화국 영웅대극성, 역시 공화국 영웅 강정덕 등 비
행사들이다. 제1 항공방사기 사단 비행사 성원들은 전부
다 1950년 이전까지 소련에 들어와 대학 유학생으로 공
복하던 3-4학년급 학생들을 1950년 말기에 급격하
게 동원하여, 소련 3중 비행사 영웅 꼬레주부 사단과
동반 홍화에서 만나게 하여, 5개월간 즉 1951년 2월 부터
7월 말까지, 밤이면 4시간씩 비행 리론 강의를 듣는
한편 낮이면 비행장에 나가 각 소련 비행사 한 명이
자기 비행기에 조선 비행사 한 명씩 (아직 학생) 앉혀 놓고
실무적 상황을 수행하여 8월 초순부터 비행 단종 훈련을 시
작하여 1951년 9월 부터 벌써 단종 훈련을 종결하고 전후
훈련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10월 말부터 소련 비행사들의
엄호하에 미국 비행사들과의 전후를 진행하였다. 전후 전
입 초기에는 비상사건도, 전후원 논설도 없었지만 1952년 부터는
전체 비행사들이 영웅적으로 진출하여 미국 및 유엔 비행사들
에게 영웅성을 발휘하면서 미항공 김포 비행장 주재 식령
관 맨 플리츠의 아들 대대장을 추락하고 그를 포로화시켰다.
이 당시 항공사령부 사령관에 왕권 중장, 비행복사령
관에 리활 소장, 참모장에 김원길 소장, 군사위원에 김
태건 소장 등 간부들이 일하시었다. 1952년 11월에 맞은
비치노드를 회고하여 본기로 하자, 김일성 최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여성 폭격대대는 김포비행장과 언천항 원류저
장소를 폭격하여야 하였다. 항공사령부 성원들은 최군사
령관의 명령을 철저하게 실행키 위하여 몇일 동안 준비
에 급급하여 들어갔다.



사진은 1960년에 박선생이 문화선전성 산하 국영 중앙도서관 관장으로 재직시에 찍은 것이다.

뒷줄에: 박선생, 박선생의 장모님, 박선생의 부인 고 마리아,

앞줄에: 오녀 - 박 릴라, 오녀 - 박 달리아.

야간 폭격기 오대는 태선리 대위, 진을관 상위가 두 비행사들이 불교 나팔 예정이었으나 준비상 거설되는 문제가 있어 비행기 한대에 두 비행사를 다 들 예정이었다. 조정시에 진을관, 항법사에 태선리로 결정되었었다. 비행기에는 약 250킬로 소형 폭탄을 적재하고 떠나가, 어떤 큰 파괴를 일으킬 목적으로 적어타기보다 남한 언덕에게 큰 여풍 일으키고 북한이 전쟁대승리의 날이 가까와 온다는 목적이였다. 그런데 어떤에는 아무 용어하게 어둡하던 비행기가 제대로 어둡하지 못하고 약 200 미터 밖에 있는 우수우밭에다 다시 가만히 착륙하고 말았다. 다행히 적재한 폭탄들은 파괴되지 않아 어떤 피해는 없었으나,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실행못한 것이 제일 큰 잘못이었다. 비행장에 댄 기술근무원 심원들은 비행기의 재차 리륙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강상의 밤에 가서 불의 창고를 하나씩이나 비행기 다리를 휘어잡고, 각막단 등

등도 허지는 한편 익단에 복착식별 후르계, 고드계 등이 권부다 무려라⁴
진가 님어였다. 그리고 비행사들로 신경을 극도로 어르기까지 긴장
식했던 환경에서 원래는 맥이 다 떨어져 다시 수습 경미할 확률
성이 없었다. 그런데 백항선 선생님에게 큰 화란이 생겨났다. 문제는
백선생의 중전직무 정취부 사안장에서 1952년 8월 부하 권군 되어
사령부 정취안전부장 직 부에서 일하시였다. 정취안전부장란 것은
(안기부, 혹은 특무부 라고도 하는바) 항공사령부내에서 생기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때에 즉발하여 인민군 총정치안전국에 보고를 제출해야 되
며 그에 대처할 대책들을 제때에 취하여야 되였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대선희와 진을란이 조정하는 비행기 쓰지 못하였으니까,
전후임무로 수행하지 못한것을 항공사령부 참모장 김원길 소장, 비
행부 사령관 리활 등 두 장령은 최고사령관 관저에 찾아가서 참
모장이 모에서고 부사령관이 뒤에서서 오른손을 이마 옆에 부치
고 정식보고를 = "최고사령관 동지! 항공사령부 야간 폭격대
대는 김포비행장파 인천연류참고를 목적으로 대성공을 이룩
하였습시다" 하였다. 김일성이는 이보고를 받고 너무나 흥
여서 자기 부관을 부르고 작전부장, 부참모장 등을 불러놓고 이들에
게 군사정보 열급식 높일것과 또 대선희 진을란어도 열급식
높여줄 명령서를 작성할것을 명령하였다. 그 이튿날부처 김원봉
이와 리활이는 증장 전장을 부치고 자기 일자리에 나왔으나
대선희와 진을란이는 군복도 입지않고 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알נם다고 신음을 하면서 침대
에 누워서 계속 울고있었다. 이때에 점차적으로 정취안전
부에 이상한 통보가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제일
이상한것은 김포비행장이나 인천 원류참고가 폭격당
하였다면 서울 라지오 방송이 상당히 소동을 일굴
터인데 아무런 방송도 없는 거 평양 방송은 어떤 사실

을 위조하여 가지고 야간포격의 대 성공에 대하여 몇일
간 계속 누락을 불었다. 이에 대하여 박창선 선생은 항공사령
부 정치안전부장으로써 의심을 품고 있는데 녀성 대대 정치안
전 기관으로 부터 이상한 흥분과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대대장
대선희가 옆으로 밤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어 고민하면서 울
고만 있다는 것이었다. 박창선 부장은 이에 대하여 대선희하고
물었으나 아무 대답도 없이 울기만 하는 것이었다. 박 부장은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틀림없는데 알 수가 없어 생각하던 끝에 전화를
들고 언원군 최고사령부 정치안전국장 석산 소장에게 보고 하였다.
석산 국장은 그적석으로 차를 타고 최고사령부 검찰국장과 같이
항공사령부에 내려왔다. 처음에 왕현 사령관에게 간단한 인
사를 올린 다음 박창선 부장과 몇시간 담화가 있은 다음 석산
국장이 혼자 군의노에 가서 대선희를 만나 조심히 인사의
말씀이 있은 다음, 무슨 일 때문인지 실호하라고 권고하였다.
대선희는 처음에는 약 심분간 말없이 울기만 하다가 실호하겠
고 하고서는 « 우리 비행기가 비행장에서 뜨지도 못하였으며,
김포 비행장과 인천포격에 대한 보고는 허위 보고였다는 것을
알하고, 자기들은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하면서
허위 보고는 사령부에서 조작하여 최고사령관에게 보고 하였
다고 하였다. » 그것은 사실 그러하였다. 그런데 항공사령부에서 조
작하여 최고사령관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은 우선 박창선 부장에게 제일
큰 책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 그런 허위 보고가 노심치 못하게 하여,
또 최고사령관에게 허위 보고가 전달되지 못하는데는 정치안전부가,
기별 역할을 하여야 하였다.

여하한 간에 1952년을 보나면, 1953년을 맞이하는 농구영선
영철에 몇몇 고위간부들은 특간장을 태우고 있는 환경에서 박창선
선생도 헛치 않았다. 끝끝내 1953년 정월 12일에 최
사령관의 명령 사 언원군 군목자들의 정직성에 대하여가

나왔다. 명령서 내용은 강하지 않게 썼으며, 군부관들의 일
 반적 정직성에 대하여서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여서와 정직성 교양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리 특별히 항공사령
 부 관하에서 어에 관심은 돌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허위 보고와 최
 고사령관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었다.
 그 몇달 후, 항공사령부 참모장, 군사위원, 사령관 세명은 철직
 되었으며, 차후 참모장 김원길과, 군사위원 김태건은 후속 처단
 되었었다. 그런데 박창선 부장에 대한 두레다. 우선 정치안
 전 부장이 아주 중요한 처분을 받아야 하였으나, 박창선에게는 아
 주 강한 엄호자가 있었다 그것은 최고사령부 정치안전국장 석산
 국장이었다. 석산이는 원래 김일성 발간지산 출신이며 총명하고
 심중하여 물레취리를 어느때를 불문하고 바로 하였으며 종파에
 관념을 두지 않은 사람의 질이 좋은 면 좋은대로 좋게 하절하
 였다. 석산이는 김일성에게 있어서도 대심복자였다.

최고사령부 군사위원회 1952년 12월 회의에서 항공사령부 물레
 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조병사령부 참모장 정학권리와 장전국장 유
 성철이는 김원길, 김태건, 박창선 등 명은 총살하여야 된다고 제
 기하고, 왕원 사령관과 리활 부사령관들은 철직 제하여 종신
 징역 사리를 보내라고 제기하였다. 그러나 석산 국장은 김원길이나
 김태건 또 박창선 등 지도자들이 직접 비행장에서 전후일부행
 을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관대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고하면서 특히 박창선에게 대하여서는 그가 항공사령부 정치
 안전부장으로 전근된지 몇개월밖에 안되리, 또 정치안전 계통
 사업이 처음이되다 보니 훈련에 오해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처
 분을 도저히 할수없다고 말하면서 황시 제 2 비행사단에서
 정치부장 직분에서 당정치사업으로 잘해왔기 때문에 사령부 정치
 안전부장으로 승급직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감싸주었다.

이렇게 되어 박항선 부장은 대차별은 모면하였으나 인민군대내 그 직목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1953년 10월말일에 군대에서 제대되어 개성 경제대학 부학장으로 조동되어 갔다.

석산이는 왜 박항선이를 그렇게 사주했는가? 그것은 간북에 대한 표현성이나 종파적 견지가 석산이에게는 없으며, 본래 사란의 품성이 사람답게 생긴 사람이며, 둘째로 항선이가 북한에 도착하여 처음 평전 사내 부학장할 때부터 두분은 아주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었다.

박항선 선생은 1954년 5월 17일에 문화선전성 외사부장으로서 전근되어 평양에 올라오게 되었다. 평양에 또 좋은 직목에 올라오기는 하였으나 벌써 어찌 부러 당내부는 들끓기 시작하였다. 박헌영어와 어응엽어를 일벌쓰고서, 미국소파이나 끌리 풀을 달아 씹산한다음 허각어로 암살하고 언제는 남한에서 들어온 우리 등등 간북들은 완전히 씹산한다음 당내에서는 당사상 검호사업을 열어 놓고 전제 외국 출신 간북들은 모조리 씹산하면서 당내 독재제도 민족적 군국주의에 세습제도를 꾸리는 때였다. 박선생은 문화선전성에 올라와 애쓰고 일하였지만 막아막 당시상 검호회의에서는 박선생을 자기가 범한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으로 비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지향 목적성이 없이 늘근반 한리나 해워서 당시상검호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허북기관에 전근 식어야 된다고 결정하고 외사부장 직에서 국가도서관장직으로 내리 떨어졌다. 박선생은 이 도서관장직 무, 이 불지끼고 책 풀지들이 남아가온 남세북에서 연 4년간 간장을 말리다가 결국 1962년 초순에 소련에 귀국하였다. 소련 하유겐호에 와서 사책로 배정받고 아이들도 취직 및 공부문제로 해결하고 복업도 취직하여 행복하게 지내다가 1975년 4월 21일에 별세하시었다.